

## 은빛그리스도의교회의 비전

- 예배** 은빛그리스도의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 교제** 은빛그리스도의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 훈련** 은빛그리스도의교회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 사역** 은빛그리스도의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 선교** 은빛그리스도의교회는 제자의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 은빛그리스도의교회 신앙지침

- 오직 성경만을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다
- 오직 그리스도만 신조로 삼는다
-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명칭만 사용한다
-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규정만을 지킨다
- 오직 복음만 주장한다
-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주장한다
- 비본질적인 것에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한다

거룩한  
부흥이 있는 교회!  
은빛그리스도의교회를 소개합니다!

은빛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빛' (은빛)을 환히 비추어 생명의 빛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든지 와서 섬을 얻고 한 가족을 이루어 가는 교회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공사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빛그리스도의 교회 목사와 장로 임직예배에 증인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조그마한 기념품을 마련 했사오니 꼭 받아주시고, **오리 전문점 금송**에 감사의 오찬을 마련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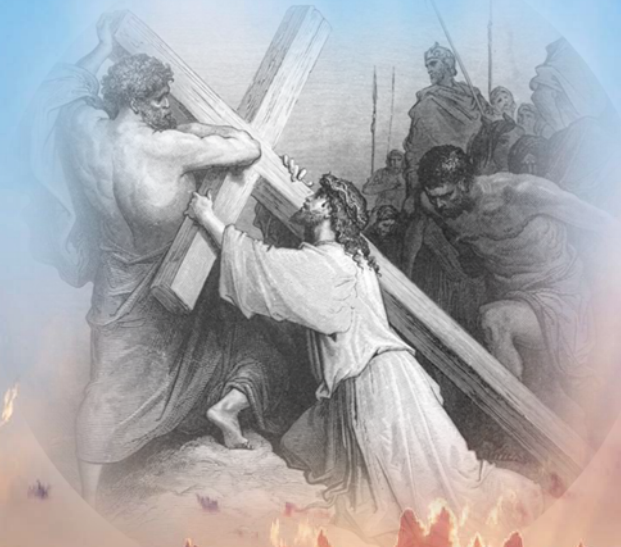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주차장 있습니다.)



# 임직예배

목사임직: 이석원

장로임직: 김은기



'11년 2월 26일(토) 오전 11시

은빛그리스도의교회

## ■집례사회

강희경 목사(은빛그리스도의 교회)

## ■예배의기원 Supplication 사회자

## ■찬송 Hymn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 같이 빛나네 해 같이 빛나네
2.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 없는 자비를 뭇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3.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시네 날 위해 지시네
4.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5.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뵈을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 ■기도 Prayer 김선국 목사(물댄동산교회)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롬1:1 사회자

## ■찬송 Hymn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말씀선포 Sermon “하나님의 종”  
김미경 목사(도봉그리스도의교회,서울지방회장)

## ■목자의 기도 Pastor's Prayer. 김미경 목사



Let us...praise God's  
Glory(Ephesians1:12)

많은 시간 오랜 세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막상 장로 장립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보다는 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모했습니다. 많은 방향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수 없는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였습니다(롬7:19)**.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 안에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족함뿐이요 연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되짚어 보니 게으름만 피웠고 순종하지도 못하였는데 귀한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간증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뿐인데 도구로 귀하게 쓰시겠다고 또 불러 주십니다.

장로! 믿음의 형제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직분을 받아보고 싶고 꿈을 가져보는 직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순간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거운 짐만 한 짐 잔뜩 짊어진 듯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어찌 감당하라고 이 귀한 직분을 저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시나이까?’ 라는 고백만이 터져 나올 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는 기도, 예배, 겸손, 믿음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내 약속하셨던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는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시가 바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듯이 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모든 이의 구세주가 되심을 날마다 날 마다 전하고 증거하면서 허락하신 생명의 년 수를 채우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온유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큼니다. 오늘 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받은 사랑이 너무 달콤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He began to wash  
the disciples’ feet.”-John13:5-

은빛그리스도의교회 장로후보 김은기

저는 오늘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인 저를 섬기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시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섬기려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제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모든 분들의 종이 되어 그 분들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행여 제가 아집과 독선으로 목회를 하려 할 때에도 교회의 지체이신 여러분께서 바르게 권면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 같은 지체로서 대해주시고 지나친 대우나 존경심을 갖지 말아주시되 다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에서만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7:59). 스테반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저의 다짐이 이와 동일합니다. 저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내 세울만한 것은 더욱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제 인생의 전부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생을 마치려 함에는 저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기 아니하기(행20:24) 때문입니다.**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는 하나 성경에 비추어 맞을 때만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 개인의 생각이니 이럴 경우에는 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저의 교만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혹 말씀을 왜곡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증거한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샅샅이 목사에 불과할 뿐이므로 언제든지 교회공동체에서 쫓아내 밖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저 또한 복음전도자임에 광야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 것입니다. 때로는 목마름과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침 뱉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길만이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하고 묵묵히 그리고 쉽 없이 그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교회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셔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저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제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하려 함은 제 안에 사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죽는 것도 제게는 유익(빌2:20~21)하기 때문입니다.**



"And they stoned Stephen, calling upon God, and saying,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Acts7:59-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셨음에 순종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기에 침례 요한이 했던 외침을, 스테반이 했던 설교를 하다가 비록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저는 갑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목사로 지명 받은 저의 신앙고백이며 마음가짐이며 목사로서의 변명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감사함으로....

목사 후보 이석원

■찬송 Hymn 350장 (새 320) 나의 죄를 정케하사

1.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2.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소서 능력있게 함소서
3. 죄의 짐을 풀어주소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읊소서
4.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 하게 채우사 생명이사 강물 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안수위원회 소개 Introduction Committee of Ordination : 강희경 목사

정일호 목사(은혜로운교회, 중경총회장) / 장성우 목사(은혜로운교회, 중경총회장)

최금생 목사(열린교회, 중경총회장) / 김상호 목사(햇불교회, 전 한성신학교학장)

최용호 목사(은혜로운교회/한성신학교수) / 조동호 목사(빛과생명교회, 한민대학교 교수)

정영현 목사(초대교회) / 강희경 목사(은빛그리스도의교회)

■임직후보 소개 Introduction of Candidates : 강희경 목사

목사후보 : 이석원 전도사 / 장로후보 : 김은기 집사

■서약 Swearing : 김미경 목사

■안수기도 Prayer of Ordination : 안수위원

■가운착용 Wearing of Gown : 안수위원/임직자

■선포 Proclamation : 김미경 목사

■안수증 수여 Certification of Ordination : 김미경 목사

■권면 The Charge : 강희규 목사(성심교회)

■축사 Congratulatory : 이환욱 목사

■축가 Song of congratration : 김성환 원장

■광고 Announcement : 임직자 감사의 말씀

■찬송 Hymn 431장 (새 378) 내 주여 뜻대로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 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축도 Benediction : 이석원 목사



I asked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This much,"  
He answered.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died.

■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일치와 성서의 권위회복 그리고 회중주의를 표방합니다.



■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교파인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파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기를 원하며 신약성경 즉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로의 환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을 우리는 **환원운동**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파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입니다.

■ 환원운동이란 무엇인가?

환원운동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순수성, 단순성, 본래성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며, 개혁이나 혁명과는 성격이 다른 원상복구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첫째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요, 둘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요, 셋째가 회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교회를 하자는 운동**입니다.

■ 현재 이 운동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에만 2만 3천여 교회와 3백 70만여 성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기독교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현재 **360여 교회**가 이 운동에 소속되어 있고 세 개의 신학교가(서울기독대학교, 그리스도대학, 한성신학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 운동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내용은 무엇인가?

16세기 종교개혁이후 개신교 안에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자각이 18세기 말엽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발톤 스톤과 토마스 캠벨**이 거론됩니다. 1804년 15개의 교회로 구성된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체하면서 낭독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를 요약하면 **본 장로회는 죽고 해체되어 넓은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침몰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오직 한 몸, 한 성령만이 있기 때문이다. 한 주 만이 계시므로 목사에 대한 높임 칭호인 Reverend를 쓰지 않겠다.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할 법령이나 위임된 권위로 그들을 처벌할 권한을 영원히 멈춘다.** 목회자의 선택이나 책임은 물론 교회 행정과 치리에 있어서 회중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일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차 관용의 정신을 키우고, 기도에 힘쓰며, 분쟁을 줄이고, 시대의 정조를 살피 구속의 날을 고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809년 토마스 캠벨은 선언, 제언, 부록, 후기로 구성된 56쪽의 **선언과 제언**이란 문서 중 **13개의 명제**는 이 운동의 **핵심현장**과 같은 것으로 이들 운동의 핵심내용은 교회연합과 성경의 권위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중성입니다. 특히 이들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한 **개 교회 중심의 회중정치**를 표방하였으며, **성경만을 교회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자는 정신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연구소장:조동호 교수)를 방문하시면 풍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일어난 환원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한국에서의 환원운동은 구세군 사관 출신의 성낙소 목사가 1927년 충남 부여 세도면 화수리에 **기독교 교회**를 세우면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낙소 목사는 1930년 일본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 커닝햄과 체이스의 초청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른 한편, 감리교회 목사인 동석기와 강명석은 미국에 유학하던 중 그리스도의 교회를 접하게 되고 귀국하여 **기독교교회 운동**에 합류함으로써 발전의 물결을 타게 되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ccs.info>

■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 교회이기를 고집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 입니다. 이는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합니다.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엡2:20)

■ 사도들의 예배전통만을 따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체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네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를 완성시키는 네 모퉁이 돌들입니다.

■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명칭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들, 형제들,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집사** 등 신약성경에 나오는 명칭만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은 성경적인 명칭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교회라 부름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 인위적인 신조나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주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신조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의 신조를 구원하는 믿음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 신약성경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창설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권능이 부여된 신성한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모여 예배하고, 교육하며, 교체하며, 흠어져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 오직 성경만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규정만 지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성경의 규정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세운 교회의 조직, 치리, 예배 등의 전통을 말합니다.

■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정신에 입각해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의지에서 출발하였지만 신약성경 기독교에로의 환원은 자칫 남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배타성을 떨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19세기 이러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 뿐이다'는 중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본질에 일치, 비 본질에 사건의 존중, 모든 일에 사랑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주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